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91년도 서리집사 2,338명 임명

다음 주일 I, II, III, IV부 예배 때

남자 804명, 여자 1,534명

91년도 서리집사 임명식이 오는 12월 9일 I, II, III, IV부 예배 시간에 있다.

91년도 서리집사는 남자 804명, 여자 1,534명으로 총 2,338명이며, 이들 가운데 91년도에 새로 임명되는 서리집사는 남자 142명, 여자 248명 총 390명이

다. 서리집사들은 천국 일꾼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제자훈련을 받았다. 특히 신임 서리집사들은 신앙이 돈독한 자들로서 당회의 면접과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제자훈련을 거쳤다.

9일 임명될 서리집사들은 91

년도부터 교회 각 부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봉사하게 된다.

한편 서리집사 수련회가 91년 1월 11일 저녁 7시에 갈릴리움에서 있을 예정이다.

(신임 서리집사 명단은 3면에 게재)

내년도 주요 사업 및 조직 발표

우리 교회는 91년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선교·구제에 관련된 조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사 업	기 간	책 임 자	지도목사	위 원	비 고
미래지도자를 위한 복음화 대회	2월중	이 훈	김 해 규	정하우, 최성현, 조인제, 박용삼	
제5회 교구찬양대회	4. 6	손 동 운	김 은 태	오태희, 각 교구장	
제3차 충현올림픽	5. 21	우 기 전	송 태 근	노광현, 박치민, 박승준, 정광호, 강은원, 노문환	
제2차 및 제3차 집치세미나	5. 28 - 6. 7 (2차) 8. 27 - 9. 6 (3차)	정 하 우	이 조 용 마 일 수	윤인현, 이영세, 박철훈, 오정수, 김재명, 윤성철	봉사위원 임명 및 실시계획은 별도 수립함
제4차 흥 해 작 전	6. 6 - 16	김 은 호	최 인 근	손동운, 최상규, 송기홍, 오정현, 최부길, 이창호, 박영식, 손경수	
한·미·일 청년 미래지도자 대회	8. 18 - 24	이 영 세	김 학 진 마 일 수	이병학, 하대선, 윤인현, 최대원, 강은원, 이 훈, 송환창, 박용삼, 김천재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	10. 11 - 12	노 광 현	김 창 수	구제위원 및 각교구장	

할렐루야찬양대 기독교방송 창립 기념 행사에 참여

할렐루야찬양대는 오는 12월 6일에 개최되는 기독교 방송 창립 36주년 기념 음악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저녁 7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릴 예정인 이 음악회에서 할렐루야찬양대는 생상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와 그밖에 두 세 곡의 성탄 축하 성가를 부르게 된다.

공산권에 성탄 선물로 성경·찬송가를! 공산권에 성경·찬송가 보내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우리 교회는 공산권과 아시아권 나라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7일 “공산권에 성경·찬송가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이후, 많은 성도들이 이 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당초에 공산권에 금년도 성탄 선물로 성경·찬송가를 보내기로 하고, 2만 권의 목표량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성도들이 헌금한 액수는 성경책 7천 8백여 권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권과 아시아권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될 이 운동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여 그들에게 의미 있고 기억에 남을 성탄 선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최시원 교수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환희의 찬송을 부르실 최시원 집사님!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도도 아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는 진리를 못 믿어서도 아닙니다.

너무도 급히, 너무도 조용히 훌쩍 홀로 떠나신 최시원 박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뜻에 두려운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인생이 무상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일 주일 전, 사모님과 함께 저를 찾아 오셔서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때만 해도 최 감독님의 목소리는 영혼을 감동시키는 진실과 희망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충현교회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이 내게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당신을 나의 친구로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지요.

한국 교회 음악의 거성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 성가대를 마음껏 지휘하며 영원히 높이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소서.

11. 29

성경통신강좌 진도 매일성경읽기표와 병행키로

우리 교회 부설 성경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충현성경통신강좌”(매주 주보 게재)에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는 성도의 수가 10월 말 현재 2천 4백 4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충현의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실증이라고 하겠다.

91년도부터는 “매일성경읽기표”와 진도를 맞추어 출제할 예정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매일성경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충현성경통신강좌의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이를 통하여 충현의 성도들은 최소한 1년에 성경 전체를 한 번 읽고 공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성경통신강좌에 모두 참여하여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내년부터 “— 구역”을 “— 다락방”으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교구의 구역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변경 내용을 살펴 보면, 종래의 ‘○○협력 구역’이라는 명칭을 ‘○○협력 다락방’으로, ‘○

다’의 명칭을 ‘○○다락방’으로 바꾼다. 이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성경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도 상호간에 연합과 친근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에스더전도회 제11지회 사랑의 집 건축헌금 드려

에스더전도회 제11지회는 금년도 봉사부의 사업 계획의 하나인 사랑의 집 건축헌금으로 드렸다.

이밖에도 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집 건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



성경 강해

이 종 운 목사

주님을 사랑한 이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요11:1~2)

우리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말씀을 예배당 앞에 붙여 놓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충분치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드러났고 그리스도도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함이라”

하나님과 그 아들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임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아들을 괴롭히고 나아가서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보아야 할 말씀이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저들은 주님을 사랑하였습니

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을까요?

1. 마르다에게서 배우는 봉사의 자세
마르다는 삼 남매의 맏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봉사를 많이 하는 매우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마르다의 인생관과 가치관, 그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동생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봅시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다가 그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

님께서 마르다를 꾸중하신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봉사를 꾸중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봉사에 대한 태도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봉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세가 자기를 위한 봉사이어서는 안 됩니다.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 주지 않는다고 여기서 마르다는 불평합니다. 이런 마르다의 가치관이 동생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간직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녀는 이미 봉사가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세기의 나사로입니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벌써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나사로와 같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3.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사랑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그 오라비가 죽었을 때

그런데 마리아는 3백 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일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노동자가 1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하는 것을 한꺼번에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낭비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자세를 정확히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4. 결론

마르다는 봉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 주고 협력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마르다가 받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일을 했던 거듭난 마르다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증거한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나사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갖다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오라비가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도 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기쁨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바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오늘 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바치지 않고 그것을 얻었다면 그는 필시 도덕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지 반쪽만 바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토해 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라는 말이 세 번씩이나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망, 시기, 질투의 마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습니다. 이는 모두 자기가 죽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위하여 봉사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혹시 자기를 위해 하지는 않는지 보아야 합니다.

2. 무언의 증거자 나사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요 11:14).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살펴 보면, 그가 아무 말도 안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를 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사로만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나사로는 무언의 말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요 11:32). 이것은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도 이와 똑같은 말을 했음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똑같은 말을 하였지만 그 뉘앙스는 아주 다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권능을 믿는다고 한 것이지만, 마르다의 말 속에는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후에 주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옥함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었던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생애 바칩니다.’라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생애 말고 네 지갑을 바치거라 하신다면, ‘다른 것은 다 바쳐도 지갑만은 안 됩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물질을 일반 악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91년도 신임 서리집사 명단

(지금까지 봉사하신 서리집사는 전원 재임됨)

'91 신임 서리집사 (남)

강종찬	강진택	강희철	고석창	최승철	최현계	최홍식	편무산
고영철	구재완	권병철	권혁진	하영준	한용호	한호철	허찬우
김재호	김규태	김남식	김대웅	홍원석	홍이표	홍일성	황선구
김대철	김동안	김명진	김민채	황용조	황인주		
김삼열	김성남	김성주	김수연				
김언희	김연태	김영길	김영준				
김용래	김인술	김인호	김일생				
김재철	김재홍	김종성	김종수				
김종열	김종환	김종태	김준호				
김진엽	김항범	김형종	김호선				
남용철	동방용운	문조영	민조식				
박경열	박노택	박만홍	박병기				
박병선	박주하	백정현	배재성				
백 종	백종성	변관재	변정국				
서태순	성준경	송석주	송영복				
신현길	양기수	양재영	오세길				
오순도	우종근	우지원	유근중				
유기종	유장평	유창식	윤 배				
윤재춘	이 근	이근담	이기찬				
이두희	이병희	이삼연	이상배				
이상복	이상재	이석재	이선우				
이상은	이승찬	이양철	이영남				
이영일	이원희	이재윤	이정구				
이정섭	이종석	이종욱	이종호				
이중현	이지환	이진규	이창희				
이평희	이효성	이희직	임 근				
임상현	임옥균	장삼길	장석두				
장승규	장양일	장영창	장홍식				
전용원	정기원	정대원	정상구				
정영민	정재명	정필길	정현철				
조석구	조원상	조필근	지정록				
최병재	최봉환	최사화	최수일				

'91 신임 서리집사 여

가원정	강신순	강춘희	강종자
고순덕	고후덕	곽연숙	구명덕
구수진	구옥자	구유진	권명희
권혜연	금호순	김경숙	김경순
김경순	김경아	김경자	김경희
김계순	김국자	김귀자	김남순
김덕혜	김두연	김명순	김명화
김미란	김미영	김사분	김성금
김성희	김숙자	김순영	김순옥
김순자	김순재	김양녀	김영미
김영숙	김영식	김영언	김영옥
김영임	김영하	김영희	김옥래
김옥순	김옥희	김인덕	김정남
김정수	김정숙	김정자	김춘식
김춘자	김춘자	김하경	김현자
김혜련	김혜선	김희선	김희숙
김희숙	김희순	남혜숙	류향란
마덕숙	문경자	문애경	문인란
민옥순	박명자	박숙희	박순례
박숙자	박연순	박영순	박영혜
박옥자	박영숙	박은미	박은숙
박은숙	박인애	박정원	박주희
박춘자	박태희	박현숙	박현혜
배은경	배은희	백원선	백정숙
변예선	서기순	서성남	서영희
서윤숙	서인순	서정자	서희숙
석경숙	성열승	손양옥	신계희

신복순	신정순	신주영	신필식
신혜실	신혜자	심재을	안정인
안춘희	안행자	안향숙	양숙자
양승자	양영숙	여옥남	여현진
오세은	오영희	오옥희	오인숙
오준분	오지현	유명자	유상순
유순원	유승옥	유영순	유옥련
유정숙	유필래	유희자	윤금자
윤문자	윤숙희	윤신자	윤영남
윤영자	윤이임	윤창희	윤향중
윤현숙	윤희경	이경자	이근덕
이길집	이름이	이덕심	이명진
이분구	이미애	이복희	이상남
이성춘	이수자	이순일	이아연
이양현	이영숙	이영순	이영순
이영희	이오복	이옥숙	이용례
이용자	이재순	이정덕	이정숙
이정옥	이정자	이주형	이현주
이혜숙	이홍순	이희숙	이희표
임신자	임정자	임정희	임홍숙
장선옥	장선자	장세복	장의경
전명주	정금선	정금순	정남옥
정부희	정은희	정인숙	정정근
정정금	정정란	정정숙	정정순
정정자	정정희	정찬실	정태영
조양덕	조완희	조정옥	주순정
주순희	주정원	진영순	차경숙
차의숙	채명혜	천상순	최명순
최부선	최숙경	최신란	최옥숙
최인상	최재순	최정화	최현숙
최희숙	표복자	표봉애	하두연
하일상	한경숙	한성희	한영란
한영애	한정란	한정숙	한화선
허 숙	홍경숙	홍승순	황명화
황 혼	곽노희	이영옥	정숙진

서송원교회를 다녀와서

베드로전도회 제5 지회

베드로전도회 제5 지회(회장: 이갑재 집사)는 지난 11월 10일 지원 교회인 충북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교회에 있는 서송원교회를 방문했다.

서송원교회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40분.

간간히 날리는 눈발 속에서 서송원교회의 당회장이신 최요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민준화 전도사님께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우리 일행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민준화 전도사님의 인도로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친 후, 최요한 목사님께서 서송원교회 현황을 설명하셨다. 그 교회는 2년 전에 설립된 천막교회이다. 설립 당시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이신 신내리 선교사님께서 천막을 제공해 주셨다. 교회 부지와 차량 구입 문제로 지난 6월부터 서송원교회 성도들과 5지회 회원들이 기도하고 애썼으며, 이미 몇 차례 방문도 하고 전화나 우편 보고로 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교회 부지와 차량 구입 문제가 선결 과제인 줄로만 알았다. 그

우리 전도회 회원들은 그 동안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서송원교회의 부지와 차량 구입을 위해 전 회원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왔다. 이런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심으로써, 교회 부지 구입비 백 70만 원을 회원들의 헌금과 베드로전도회 협의회 보조로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거기에 회원들의 정성이 가미되어 차량 구입비도 마련할 수 있었다.

교회 부지 매매 계약 장소에 당도했을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감격하였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장소는 당초 예정했던 도로 옆 눈에 접한 채소밭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왼쪽에 위치해 있는 과수원을 비껴서 맑고 깨끗한 시내가 흐르고, 오색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준비해간 교회 부지 대금과 봉고차 서류를 전해 드렸다.

베드로전도회 제5 지회는 앞으로도 일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11월 25일 자에 게재되었던 91년도 교구 조직에 관한 기사 중 10교구 5지역장을 김환기 장로

에서 김환기 집사로, 18교구 미주 지역과 일본 지역을 영어권과 일어권으로 바로 잡습니다.

7일에 제1교구 송년의 밤

제1교구(교구장 최무길 장로)는 7개의 남부전도회를 주축으로 12월 7일 오후 6시에 갈릴리움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날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교구 성도들간에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과 찬양의 시간, 그리고 간단한 예배와 90년도 각 전도회 보고가 있는 후, 이 종을 위임목사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비디오 상영을 하며 달려온 90년도를 회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제2동산 묘지 조성 위한 임야훼손허가출원 승인

재단법인 충현동산은 지난 23일의 당회를 통해 충현 제2동산 묘지 조성을 위한 임야 훼손 허가출원을 승인받았다. 임야 훼손 허가출원 면적은 약 19,070평이고 소요 예산으로는 측량설계 비용으로 약 2천5백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일 예배에는 두 부분의 음악 형태가 있다. 하나는 일반 성도가 합심하여 부르는 회중 찬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이다. 이러한 음악의 진행은 다른 종교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기독교의 큰 큰 장점이며 이 음악의 표현 방법과 수준에 따라 예배의 분위기는 다르게 나타난다. 예배의 회중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감사의 표시요 감격하는 기쁨의 표시이다. 찬송가를 부를 때 때로는 신앙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소원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눈물의 찬송도 되겠고 평안과 위로를 구하는 찬송일 때도 있겠으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부르는 회중 찬송의 소리는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 열기의 도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성도들이 회중 찬송을 부르는 강도에 따라 교회의 발전은 비례하게 된다. 찬송 소리가 약한 교회는 냉랭하여 침체하게 되고 찬송 소리가 크고 열기가 있을 때 교인들의 표정은 밝고 능동적이어서 그 교회는 날로 부흥 발전하게 된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부르는 회중 찬송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오르간이다. 오르간의 음향은 예배드리는 본

당을 장엄하게 가득 채워 나가야 하며 오르가니스트의 역할은 회중 찬송을 이끌어 가는데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느껴야 한다.

한국 교회의 회중 찬송 반주는 풍금으로부터 시작하여 피아노를 거쳐 이제는 오르간에 이르렀다. 한국 교회의 오르간은 대부분 전자 오르간이다. 그러나 교회의 오르간은 파이프 오르간이 최적의 악기라고 생각한다. 구미의 선진국에서는 교회를 신축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지 않으면 현당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교회와 파이프 오르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다. 교회 음악의 대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교회에서 흘러 나오는 파이프 오르간의 신비한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성도들의 열심 있는 회중 찬송이 파이프 오르간에 의하여 널리 퍼져나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정성어린 찬양이 신령과 진정으로 최고의 예술작품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하늘에는 찬양으로 인한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성도들의 표정이 충현교회에 충만하기를 소원한다.

다음호 세기등은 진홍용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회중 찬송과 찬양의 메아리



이 관 섭 집사

벅벅하게 광장에서 충현교회의 본당을 바라 보노라면 고딕 양식의 성전이 매우 아름답다.

충무로 교회 시절에 찬양대 지휘자로 부임하여 지금껏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는 나는 토요일 오후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주일 찬양 준비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 바치게 된다. 바쁜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시간을 내어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님을 알고 있으나 토요일 연습에 대원들이 적게 참석한 날이면 허전한 마음을 가늠 길이 없다. 충분한 연습 없이 주일 예배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91년도 각 위원회 위원 추가 임명

교회는 기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오정수 장로를, 구제위원회의 위원으로 박승준 장로, 조인제 장로, 이종석 장로를, 차량관리부

로, 이종석 장로를, 차량관리부에 김영길 장로를 임명하고 당회의 승인을 받았다.

청년2부 찬송가 부르기 대회 은혜 중에 마쳐

청년2부는 지난 11월 25일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열었다.

지정곡 찬송 542장과 자유곡을 불러 열띤 경쟁을 했다. 13개 팀이 참석하여 친교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또한 하대선 장로 가족과 성주진 목사 가족의 특송이 있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새가족부

찬송가 바로 부르기 대회 가져

새가족부(부장: 강순용 장로)는 지난 주일(25일) 성경 암송 대회를 집회 후에 개최했다. 잠언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암송했는데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또 오는 12월 23일에는 찬송가

바로 부르기 대회를 개최한다. 찬송가 바로 부르기 대회는 초신자들로 구성된 부서의 특성상 109장, 115장, 123장을 올바르게 부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권사회, 스테반회 5일에 정기 총회

우리 교회 권사회는 12월 5일 오후 1시 30분에 갈릴리홀에서 정기 총회를 갖는다. 한편 스테반회도 같은 날 저녁 8시 30분에 갈릴리홀에서 총회를 연다.

권사회와 스테반회는 회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성도의 교제

박승준 장로(제3교구) 한국 안경사협회 홍보 이사로 취임(전화 533-2385)

최시원 찬양 감독(제8교구) 지난 11월 30일 지방으로 소천. 12월 3일 오전 8시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입관 예배, 10시에 윤병성 목사(연세대 교목실장) 집례, 이종윤 위임목사 설교로 연세대 대강당 앞에서 발인예배

제1회 목회자세미나('89. 2. 25에 개강)가 지난 11월 26일 오후 5시에 수료식을 가졌다. 이 수료식에서는 142명이 수료하였다. 또한 이 시간에는 모범자 6명과 출석 모범자 1명이 표창을 받았다. 수료식이 끝난 후 여전도회 연합회는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기념 만찬회를 베풀어 드렸다.

참가자들 가운데 많은 교역자들은 지방 출신이었는데, 이들은 가깝게는 인천, 의정부, 광명시에서, 멀리서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서 교회의 영적 갱신과 부흥을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행'을 쉬지 않았다.

경상도나 전라도 등 지방에서

이러한 참가 교역자들의 열심 못지 않게 교역자들이 얻은 수확 또한 큰 것이었다.

참가 교역자들은 강의 내용이 충실하고 목회 생활에 유익적이며, 유익한 것이었다고 평하고 있다.

이종윤 위임목사의 성경 강해식 강의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갖게 하고,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역자 자신들의 신앙 성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특강은 현장 목회를 위한 내용들이어서 교역자들의 목회 사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세미나에서 다른 내용들은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

제1회 목회자 세미나

현장 목회를 위한 평생 교육의 기틀 마련



목회하시는 교역자들은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 버스타기차편을 이용하여 충현교회로 달려 나왔다.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데는 4시간 내지 5시간이 소요되었고, 교통비도 적지 않게 들었다. 충청북도 증원군 산골에서 목회하는 한 전도사는 사무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배움의 기회를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교계 신문에 게재된 목회자 세미나 광고를 보고 감사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그분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의 거의 전부를 들여 이 세미나에 참가하여 왔다.

여 배가 부흥한 교회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참가 교역자들 가운데는 세미나에서 다른 내용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이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앞으로 계속 실시되어 목회자 세미나가 교역자들의 평생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주문의 소리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역자들은 충현교회가 많은 물질과 인력을 동원하여 한국 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하여 뜻깊은 기회를 제공한 데 깊이 감사하였다.

생명까지 내건 신앙

웬종 왕

저는 1986년 11월에 중국에서 이곳으로 유학했습니다. 중국을 떠나기 전, 마음 속 깊숙이 자리 잡은 감정들은 복잡하였습니다. 저는 약간은 흥분도 되었지만, 대단히 걱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지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습니다. 중국에는 저의 부모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르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았고, "가정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지방으로 복음송 카세트 테이프와 성경책을 보내는 복음주의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당시 기독교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온 후, 저는 중국 교회 연구 센터와 중국 전도자 자유위원회에서 자원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래, 저희 교

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공산국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교회와 중국의 교도소에서 고통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웬종 왕은 중국인으로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IGST에서 신학 공부를 위해 유학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10일 중국 선교의 일환으로 그에게 미화 4천 8백 달러를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8과 삶의 우선 순위

본문: 마 6:19~34

요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찬송: 307, 455

설 명

먼저 위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19절~24절: 사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 25절~34절: 먹고 마시고 입는 일상 용품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부자의 경우인데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부를 쌓아 올리려는

자를 향하여 말하고 있고, 후자는 가난한 자로서 빈곤과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심과 의문을 품고 매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에도 문제는 생기지만, 부할 때에도 문제는 생깁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려는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에게는 자기의 부를 믿고 의지하려는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한 가지 관점을 갖고 있다. 내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너는 내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러분이 부자라면 하늘에 투자하는 일을 추구하십시오. 만일 가난한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돈과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초점은 소유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각각 다른 양의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동등한 문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다른 양의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그 인생은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 문

1. 모든 물질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2.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빠질 수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